



김용래 교수의 한국불교 도표 36選

# 불교와 풍수, 고려代 사상·문화 자리매김

## 10. 선과 풍수지리, 새 시대 열다

8세기 후반 해공왕 대에 신라 중대왕실은 막을 내렸고 이후 150년간의 하대에는 왕위 분쟁과 함께 극심한 사회적 혼란이 초래되면서 독자적인 정치체력이 각지에서 부상하였다. 그 결과 10세기 초에는 공예의 후고구려(대봉), 견훤의 후백제가 등장하여 후삼국 시대의 치열한 각축이 시작되었고 918년 왕건에 의해 공예가 축출되고 고려가 건국된 후 935년 신라 경순왕이 투항하고 이듬해 후백제가 망하면서 새로운 통일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선종을 살피기 전에 앞서 기존 신라 불교와 성격이 다른 밀교가 수용, 유행한 사실을 간단히 소개한다. 밀교는 <대일경>과 <금강정경>을 각각의 소의 경전으로 한 태장계 밀교와 금강계 밀교로 나뉘는데, 신라에는 7세기에 초기적 형태의 밀교가 전래되었다. 즉 선택여왕 때 병을 치료하는데 영험을 보인 밀본, 당의 신라 공격 소식에 밀교의식인 문두루비법을 써서 퇴치를 기원한 명랑, 당의 무의상장애에 비법을 배우고 돌아와 치병 등을 행한 혜통 등의 신이한 행적이 밀교와 관련된 기록으로 전한다. 8세기에는 불가사위가 중국에서 밀교 이론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돌아와서 활동하였고, 인도 구법기인(왕요천축국전)을 쓴 신라 출신 혜초도 밀교에 승려라는 설이 있다. 신라 밀교의 구체적 양상은 알 수 없지만 당에서 9세기 중반 이후 밀교가 급격히 쇠퇴한 것처럼 신라에서도 큰 세력을 가지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고려시대의 지법업, 조선 초의 신인종과 총지종의 명칭에서 밀교 전통이 진언 다라니, 의례와 함께 오래 지속되었음을 볼 수 있다.

신라 하대에는 지역 토호세력이 발호하고 경주 외의 지방에서 권력을 형성하면서 정치사회적으로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였고 이는 불교계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즉 중국에서 새로 도입된 선종이 각 지역에서 세력을 키우면서 교학 중심의 중앙 불교계와 노선을 달리하는 새로운 사상적 흐름이 전개된 것이다. 통일신라 불교는 화엄, 유식 등의 교학에서 수준 높은 성과를 냈고 기라성 같은 사상가들이 배출되었다. 하지만 하대로 접어들면서 교학이 침체되고 활기를 잃은 반면, 실천수행을 중시하는 선종 승려들이 중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지역 유력자의 후원을 입어 성장하였다.

통일신라 말 선종의 도입과 성행 사실을 살펴보기 전에 중국 선종의 역사에 대해 개관해 본다. 남북조 시대 이후 불교 이해의 심화와 학파의 발전, 수·당 대의 교종 종파 성립과 교학의 이론적 체계화에 이어 중국불교의 트렌드는 선종으로 귀결되었다. 선종은 마음에 불성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부처와 같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인간존재에 대한 철저한 긍정과 낙관적 확신에 기초한 것이었다. 선종은 앞서 남북조 말기에 태동하여 8세기 이후 크게 발전하였는데, 특히 9세기 중반 당 무종의 대규모 폐불에 의해 교종 중심의 기존 불교계가 막대한 타격을 입으면서 선종이 주류로서 급격히 부상하였다.

중국 선종의 초조인 보리달마는 520년경 남인도에서 중국으로 왔다고 하며 소림사에서 9년간 면벽 수도한 후 2조 혜가에게 심법을 전수하였다. 그는 유명한 승불합제인 양 무제를 만나 “세속의 공덕은 아

무런 공덕이 없고 오히려 생사를 윤회하는 원인이 됩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야말로 참된 공덕입니다”라고 하였다는 일화가 전한다. 둔황에서 발견된 자료에 의하면 달마는 부처와 중생이 평등하다는 불성의 이치와 마음이 본래 청정하다는 사실을 믿고 실천해야 한다는 내용의 입입과 행입의 2입, 그 실천수행법인 4행을 주장했다. 또 <능가경>을 중시하여 말과 생각을 잊는 마음의 경지를 드러냈다고 한다. 그의 선법은 혜가, <신심명>을 쓴 승찬, 도신, 흥인을 거쳐 6조 혜능으로 전수되었다.

중국 선종 5조인 흥인의 수제자는 신수였는데 그는 본래의 청정한 마음을 깨닫고 유지하는 수행방식을 중시하였다. 이에 비해 혜능은 마음에 집착하는 태도 자체를 버리고 집착하지 않는 마음의 상태를 강조하여 흥인의 인가를 받았다고 한다. 처음에는 황실의 후원을 받은 신수가 선종 교단을 주도하였지만, 이후 혜능의 제자 하택 신회가 신수의 복종을 점오의 수행방식이라고 비판하며 혜능의 돈오적 입장을 선양하였다. 하지만 신회의 하택종은 지혜(知解)에 얽매인다는 이유로 비판되면서 이후 주류에서 밀려났다. 혜능의 문하에서는 많은 불세출의 선승들이 배출되면서 남종 계통이 선종의 주류로 부상하였고 <육조 단경>의 서명에서 알 수 있듯이 혜능은 선종 6조의 위상을 부여받게 되었다. 혜능의 법맥은 마조 도일의 홍주종과 석두 희천의 석두종으로 나뉘었고, 선종의 융성함을 보여주는 5가, 즉 임제종, 위양종, 운문종, 조동종, 법안종이 모두 남종에서 비롯되었다.

마조 도일의 제자 백장 회해는 선원의 일상규율인 ‘백장청규’를 지어 하루라도 노동하지 않고는 먹지 말라는 ‘일일부작 일일불식’을 주창하여 선종의 경제적 자립과 교단 발전의 초석을 놓았다. 한편 부처와 가섭 이후 인도와 중국의 선종 조사 계보가 <전등록>에서 확정되면서 선종의 이신전전의 법맥이 역사화 되었다. 이와 함께 교외별전, 불립문자를 특징으로 하는 선종의 직관적, 돈오적 기풍이 정립되고 당·송대에 수많은 ‘어록’이 나오면서 선종은 중국 불교의 주류로서 확고히 자리매김 하였다.

신라에 선종이 처음 들어온 것은 8세기 이전이며 또 8세기 중반에 신행이 중국에서 북종선을 배우고 돌아와 제자들을 양성하였다. 하지만 공식적인 선종의 수용은 9세기 초 도의에 의해서였다. 도의는 6조 혜능의 남종선 정맥을 이은 마조 도일의 제자 서당 지장에게 수학하였고 정식 인가를 받아 821년에 귀국하였다. 도의는 ‘백장청규’를 쓴 백장 회해의 가르침도 받았는데 회해는 도의에 대해 “강서(마조)의 선맥이 동국의 승려에게 가졌구나.”라고 평했다고 한다. 하지만 귀국 후 도의는 교종 중심의 당시 중앙 불교계에서 배척되었고 선종은 ‘마어(魔語)’로 비판되었다. 이에 도의는 강원도의 진전사에 은거하여 후학을 양성하였다.

하지만 9세기 중엽에는 마조 계통에서 배워 온 유학생들이 대거 귀국하기 시작하면서 신라에서 남종 선은 크게 성행하였다. 중국에 가서 최신 조류의 선을 배워온 선사들의 영향력과 비중이 점차 커지면서 각 지역 정치세력은 물론 왕실에서도 이들을 후원하고 많은 선종 산문과 사찰이 개창되었다. 고려 초에 확립된 것으로 보이는 9산 선문은 가지사문(도의, 체징), 실상산문(홍척), 동리산문(혜철), 회양산문(도



선암사의 도선국사 진영. 선승으로써 한국 풍수지리 사상으로 개조이기도 하다. 그의 ‘비보사탑설’을 통해 ‘사찰과 탑이 국토의 안정을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다.

### 태조 왕건의 고려 후삼국 통일 고려 초 구산선문 확립돼 융성 신라하대 도입된 풍수지리 인기 ‘비보사탑설’ 도선 국사 영향 커 佛·儒·風水, 고려문화 新 트렌드

현, 금양), 봉림산문(현욱, 심희), 성주산문(무염, 사굴산문(범일), 자사산문(도운, 절중), 수미산문(이암)이었다. 이들 9산 선문을 비롯한 선종 사찰은 주로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등 경주에서 멀리 떨어진 변방 지역에 분포하였다.

신라 선종의 한 특징으로는 주류 교학인 기종의 화엄사상을 바탕으로 새롭게 선종을 수용한 것을 들 수 있다. 중국에 유학을 선을 전수해 온 선승들 중에는 신라에서 화엄학을 공부한 이들이 많았고 이들이 귀국 후 창건한 사찰에는 화엄의 주불인 비로자나불이 주로 봉안되었다. 가지사문을 연 체징이 보림사를 창건하면서 철조 비로자나불 좌상을 봉안한 것이나 철원 도피안사의 비로자나불상이 그 사례이다. 한편 선승들은 선을 우위에 두고 신라 교계의 주류였던 화엄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퍼부었다. 이처럼 선종이 부상하여 영향력을 확대함에 따라, 9세기 말 화엄종에서는 역대 조사의 저술을 강독하고 조사에 대한 현장을 강화하여 교단을 결속시켰고 결사 조직이나 교학의 재정비 노력도 이어졌다.



남원 실상사 풍경. 실상사는 신라 구산선문 중 가장 먼저 문을 열었다. 신라 하대부터 부상한 선종은 기존의 화엄 교학들을 비판하며 급격히 영향력 확대하기 시작한다.

한편 신라하대에는 풍수지리설이 중국에 유학한 선승들에 의해 도입되어 유행하였는데, 선승들은 중국과 신라에서 각지를 유력하면서 지리에 대한 경험적 지식과 직관을 쌓을 수 있었다. 한국 풍수지리의 개조로 알려진 도선은 9세기에 활동한 인물로 사찰과 탑이 국토의 안정을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는 비보사탑설을 제기하였다. 풍수지리설은 국토의 균형적 발전과 각 권역의 특성을 부각시킨 것으로 특히 각 지역의 권력자들이 선승과 연계하여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기도 하였다.

한국 풍수지리설의 비조인 도선은 평양 옥룡사에 주석했던 선승으로, 일설에는 당의 일행에게 풍수지리를 배우고 돌아왔다고 전하지만 이는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 최치원이 쓴 ‘송부사비문’에는 왕릉의 장지와 사찰을 지배에 의해 살핀다는 내용이 있어 신라하대에 풍수지리설이 크게 유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고려시대 최유정이 쓴 ‘도선국사비’에서는 도선이 지리산 화엄사 밑에서 음양오행과 풍수지리를 연구했다고 하며, 조선시대 서거정이 지은 <월일잡기>에는 그가 신선으로부터 천문과 지리, 음양의 비법을 전수받았다는 전설을 소개하였다. 도선은 왕건의 부친 왕릉에게 산수와 천문을 보니 귀한 이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견하고 왕건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고 한다. 그 영향인지 태조의 ‘효요십조’에는 도선이 산천의 형세를 따라 비보사탑을 정하였으므로 그 외에는 절을 짓지 말게 하였다. 고려와 조선시대에는 풍수지리설이 성행하면서 도선의 인기 또한 매우 높았다.

신라 하대에는 사원경제의 변화상이 나타나는데, 8세기 중반 이후 사원들 가운데 대규모 토지, 즉 전장을 보유한 곳이 증가하였다. 국가에서 장성표를 설치해주어 사원의 토지 보유 및 조세 면제 등의 특

권을 인정해주는 경우도 있었으나 대부분의 사원은 여러 지역에 토지가 산재해 있었다. 9세기 들어 선종의 유입과 함께 지방 사원이 증가하고 이들 지방 사원의 토지도 확대되었다. 당시 막대한 전장으로 유명한 사원은 해인사였고, 선종 사원인 봉암사, 대안사 등도 그 규모가 상당하였다. 9세기 후반에는 사원이 직접 토지 매입에 나서기도 하였고 신라 말의 사원은 왕실이나 귀족과 함께 전장 운영 주체로서의 역할을 행하였다.

이처럼 통일신라 후기에는 선종이 수용되어 왕실의 후원도 받았으나 주로 새롭게 부상한 지방 세력의 지지를 받으면서 지역 차원의 결합이 이루어졌다. 선종의 주요 산문과 사찰이 경주가 아닌 지방에 건립되었고 선사들의 출신 또한 대개 지방 세력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선종의 대두와 확산은 신라하대 지방 세력의 성장이나 지역사회의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또한 선사들을 통해 유행하게 된 풍수지리설은 국토에 대한 인식을 기존의 중앙 중심에서 지역 중심으로 바꾸게 하였고, 이는 지방 세력의 성장에 크게 기여하였다. 기존의 신라 중심적 관점에서 볼 때 서해안의 변방에 불과했던 개성 지역 또한 공간을 둘러싼 관념의 변화 속에서 국토의 새로운 중심지로 부상할 수 있었다.

신라 하대에 도입된 선종과 풍수지리설은 신라 중대 이래 6두품을 중심으로 한 유학자들의 성장과 함께 다음 중세사회를 열고 견인하는 사상적 기반이 되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 후삼국을 통일한 고려의 정치와 사회, 사상과 문화는 유교, 불교, 풍수설을 중심축으로 전개되었다. 또한 새로 대두한 선종과 교학자로부터 변화를 모색한 화엄을 중심으로 한 고학불교는 이후 한국불교를 이끄는 쌍두마차로서 갈등과 상생을 겪으며 공존을 모색하였다.

## 구단구궁법

상표 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b>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종헌</b>	저자 (속명 정홍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계중정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주」로써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역케 하고 있다.
<b>누가? 몇일?</b>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b>내용</b>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태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신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1대조에서 5대조까지)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입활동 가능함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1월(寅月)의 높은 나무는 바람결에 귀신의 소리를 듣는다.	
<b>수강료</b>	◆스님 - 오십만원 (책값 별도) ◆일반인 - 일백만원 (책값 별도) ◆우체국 : 601401-01-001843 (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구단구궁법 교실**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27번길 31, A동 107호 (지하철 덕천역 12번출구)  
cafe.daum.net/9dan9gung 전화 010-7415-0803

##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속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기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더라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월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월빙」을 치세요.

# 수행도우미

미국 FDA 등록인증 3009241067

	<b>발로해(두한족열양말)</b> 노폐물 독소 쏙 빠지며 발 보들보들 발냉병 즉시 해소 법당에서 절할때 꼭 필요해요
	<b>자나깨나</b> 중단전 차크라 열고 목, 뒷골, 어깨 활 폴림 스트레스 제로 온 몸에서 엄청난 氣감 체험
	<b>氣사라다</b> 누구나 누워서 저절로 자동단전호흡 100% 피로회복, 氣모음 확실 환자에게 최고의 선물
	<b>호락호락 팬티</b> 배, 엉덩이, 골반, 허리 차가움 냉병 즉시 해소 노폐물, 독소 배출 왕~
	<b>보디스킨</b> 발목,장단지,허벅지,엉덩이,등허리 목, 뒷골은 3분만 밀어도 氣통하며 정신이 맑아지고 졸림, 나른, 피로회복 즉시 해소

**세계최고! 다보명차, 슈퍼유산균 효소, 호두기름**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